

소련의 중국학 연구 근황*

보리스 리보비치 리프진
(Dr. Boris L. Liftin ; 李福清)**

1. 소련의 중국학 연구사와 지역별 분야, 그리고 중국학 연구 센터

소련에서의 중국학은 18,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比丘林의 역사서와 초기의 번역, 그리고 최초의 『중국 문학사 綱要』(1880)가 있었고, 格奧爾吉耶夫斯基에 의한 중국 신화 연구 『中國人的神話反神話故事』(1882)가 있었으며, 阿里克塞耶夫院士(1881~1951)에 의한 중국문학의 연구가 초보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타났다(참고로 말하자면, 이에 비해 한국학(조선학)은 195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혹은 민족별로 볼 때, 漢族學이 역시 가장 중심을 이루고, 그 주변 문화권에 따라 西夏 연구, 藏文 연구, 女真 연구, 敦煌學, 東干(소련 내의 回族)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레닌그라드 대학, 모스크바 대학,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레닌그라드 대학은 동방학과의 매우 우수한 교수가 100여년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는데, 동방학 연구 分組가 따로 있어 手抄本 등 귀중한 교서, 고문서 등의 소장 자료를 20여명의 전문 중국 고대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다. 모스크바 대학에는 현재 동방학과가 따로 없지만 어문 연구를 중심으로

* 1991년 4월 25일(목) 문화관 국제 회의실에서의 집담회 요약

** 1932년 레닌그라드 生. 현 소련 과학원 通迅院士 겸 고려끼 세계문학 연구소 수석연구원

하여 또 하나의 센터를 이루고 있고, 그 밖에 극동연구소에서는 현대 중국 연구의 중심지로서 백여명의 연구원이 종사하고 있다. 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동방학 연구소(연구원 약 80여명), 言語 연구소, 세계문학 연구소(필자가 소속되어 있음), 민족학 연구소, 철학 연구소 등이 있다. 시베리아의 수도 新시베리아에서는 고고, 역사, 언어,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주로 젊은 계층이 蘇-中 고고학 비교 연구, 仰韶 문화, 陶器, 예술, 심지어 武器에 관한 것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다시 동쪽으로 바이칼湖, 우란우트, 불리아트族 등의 라마교, 불교, 禪宗 등에 관한 연구와 특이하게도 맹호연, 백거이와의 비교연구가 행해지기도 한다. 블라디보스톡(海參威)의 극동대학에서는 중국 고전과 현대 문학(특히 巴金, 老舍 등)의 연구가 활발할 만하다.

2. 어학의 연구

1900년대 東方學院에서는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 한국어를 교육했는데, 그 자료는 주로 목련(審陽)에서 구입한 듯하며 도서관까지 설치하여 192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937년은 스탈린의 통치 하에 가장 불행했던 해로서 조선족을 카지흐스탄으로 강제 이송하는 등 체포와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 때 많은 서적 등 학술 자료가 알마아타로 운반되거나 분산되었는데, 그 중 일부가 푸쉬긴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타쉬켄트 대학의 동방학과에서는 위그르, 新疆學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자의 연구, 특히 고대 발음과 음성학의 연구도 있었다. 필자의 은사 야혼토프(Jahontov; 雅洪托夫)는 1950년대 만주文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動詞의 연구에 성과를 올렸다.

야혼토프의 스승인 드라고노프(Dragunov; 龍果夫)는 고대 어법에 관한 연구를 남겼는데, 그의 주석분이 王了一에 의하여 다시 중국에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야혼토프의 제자인 漢語史學者 조그라프(Zograf,

女)는 중세기의 漢語, 즉 唐代의 駢文으로부터 宋, 元, 明朝의 어문 등을 연구하였는데, 돈황의 駢文과 唐朝의 口語에 관한 연구는 중국이나 대만에도 아직 없는 훌륭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京本 통속 소설에서의 언어 연구를 중심으로 한 중세기 한어 연구는 중국에서 아직 그 연구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밖에 元代에 漢語와 몽골어의 혼합사, 官方의 文言, 현대어의 연구, 갑골문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문자의 연구는 다소 뒤지고 있다.

3. 역사학 연구

이 분야의 연구자는 비교적 많다. 중국 역사의 연구는 우선 농민 봉기에 관한 연구가 앞서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레닌그라드 대학의 스몰린(Smolin)은 송대의 농민 봉기에 관한 중요한 저술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 小刀會와 白蓮教의 농민 봉기 역사의 연구는 특기할 만 하다. 중국과 다른 나라, 특히 西夏에 관한 자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해 두겠다.

1880년대 포타닌(Potanin)의 비교 문화학의 전통을 이어 1907년 皇室 지리학자 코즐로프(Kozlov)가 甘肅省에서 모래 속의 古城을 발굴하였는데, 그곳에서 불교 사원과 도서관, 고서를 발견하였고, 金代의 판본도 찾아냈다. 이러한 西夏의 本文은 동방연구소의 레닌그라드 분소에 보관되어 있다. 서하 연구자의 또 다른 대표자로는 필자의 동료 키차노프(Kychanov)를 들 수 있는데, 서하의 글로 된 서하 법률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였고, 이는 중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이는 唐代와 宋代의 법률을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보로비에프(Vorobiev)는 『女眞 문화 연구』라는 저술을냄으로써 여진 역사의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는 흑룡강(아무르) 일대에 살

던 여진족의 宋代, 金代에 걸친 외교관계 및 外交官史, 외교 수단 등에 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참고로 소개하자면, ‘말갈(靺鞨)’이라는 말은 ‘모허’라는 말과 동족어로서 발해(渤海)를 뜻하는 듯하고, 이는 곧 여진을 지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지방 부근의 地層 단면에서는 여진족과 발해, 말갈족의 생활흔적이 각 지층 별로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는 특히 관심을 갖고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동료인 샤브쿠노브(Shavkunov)는 여진의 화폐를 발견했는데, 이는 元과 明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또 한 분의 교수는 현재 88세의 고령으로서 만주어에 매우 능하고 清代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와도 면식이 깊었으며, 여진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깊어 어느 시대의 것인지 여진-조선어 사전이 있었다는 전설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문학 및 철학의 연구

중국 문학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우선 필자는 『中國古典文學研究在蘇聯』(李福清 著; 대만 學生書局 간) 등 신화, 민간 문학, 전설, 소설 등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미 작고한 에들린(Edlin; 艾德林)의 白居易 번역이 있고, 도연명 등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斯界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레브리코프(Serebrikov)는 陸游의 「行蜀記」 등을 연구하였으며, 부녀자들의 詩詞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문학 이론에 관한 연구로는 리세비치(Lisevich)의 『中國古代文藝思想研究』가 있는데, 문학 비평에 관한 연구와 氣의 문학 이론에 관해 논하고 있다. 골리기나(Goligina) 여사는 19세기 말 梧城派 이후 魯迅, 王國維 등의 연구에 업적을 남기고 있다. 알렉시예프(Aleksiev)는 1916년

司空圖의 『詩品』을 연구하면서 아울러 書評, 畫評 등을 두루 연구하여 여러 중요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려 하고 있다.

철학에서는 코브세프(Kobsev)의 『王陽明 연구』가 있음을 언급해 둔다. 아울러 그는 근래 현대 중국 쪽으로 관심이 바뀜에 따라 중국의 性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음양팔괘, 태극도, 易經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